고문의 현장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배움터로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지난 8월 말, 나는 처음으로 남산의 옛 안기부 별관 건물 지하실에 들어섰다. 내부 구조물이 철거되어 텅 빈 약 40평의 방이 진한 곰팡내와 함께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났다. 거기는 안기부 본관 건물과 지하벙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공포'의 상상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황대권 씨는 그 곳에서 62일 동안 전기고문을 빼고는 모든 종류의 고문을 다 당했다고 한다. 눈이 가려진 채 양 겨드랑이를 우직한 안기부 수사관들에 잡혀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올 때 아마도 그들은 차가운 기운의 지하실의 그 습한 곰팡내를 맡았을 것이다. 거기에 유치장이 있었고, 취조실이 있었고, 계단 내려서 바로 보이는 곳에는 목욕실이 있었고, 감시원들이 유치장 맞은편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끌려 나가 다시 계단을 올라 지하 1층 조사실에서 무지막지한 고문…. 푸른빛의 곰팡이가 벽면을 채우고, 축축한 바닥은 미끄럽다. 그곳에서 황대권 씨의 62일 간의 증언을 듣는 것, 그것은 충격이고 고통이었다.

'남산' 안기부 별관에서

몇 년 전 인권영화제에서 보았던 '쇼와'(Shoah; 히브리어로 절멸(絕滅)을 뜻함. 홀로코스트와 같은 뜻임)의 충격을 그곳에서 나는 다시금 느꼈다. 쇼와는 자료화면이나 배경 음악이 전혀 없고, 오로지 학살 현장으로 증언자를 끌고 가 인터뷰를 한다. 끌로드 란즈만 감독이 만든 이 다큐멘터리는 총 9시간 30분 길이의 대작이다. 그렇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지루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밀려오는 충격 속에서 다음 인터뷰를 기다리게 된다. 인간의 공포의 상상력은 세트장도 없고, 연기도 없는 증언자의 진술만 따라 극대화되었다.

'남산'에 중앙정보부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72년(이 해를 잘 기억하시라.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만들었던 바로 그 해다)이었다. 그로부터 중정이 안기부로, 안기부가 국정원으로 바뀌어 내곡동 청사로 옮겨 가기까지 '남산'은 근처에도 얼씬할 수 없는 공포의 상징이었다. 남산 안기부 터는 그래서 중요하다.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이곳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수사관들의 발밑을 기었고, 숱한 폭력 가운데에서도 끝내 동지의 이름을 감추었다. 그러다가 죽어간 이들도 있었다. 최종길 교수가 죽은 곳도 여기였고, 인혁당 선배들이 당한 곳도 여기였다. 아직도 간첩이란 멍에를 쓰고 살아가야 하는 그 많은 조작간첩 사건이 이곳에서 탄생했다. 공포정치를 기획하고, 조정하던 그 독재의 총본산이 여기였다.

역사를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책으로, 말로 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광주 망월동 신 묘역에서는 광주항쟁의 역사를 느끼지 못한다. 인위적이고, 권위적인 그 묘역에 들어서면 빨리 돌아 나오고 싶어진다. 그러나 신 묘역에 비해 훨씬 비좁고, 볼품없는 구 묘역에 들어서면 비로소 광주항쟁의 현장을 느끼게 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수십 명의 열사들이 산화해갔던 그 역사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난다. 그것이 현장의 힘이다.

역사의 현장에는 과거를 상기시키는 힘이 있다

그러기에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 킬링필드의 뚜엉 슬램 박물관 등은 그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만약 이들 기념시설들이 그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지어졌다면, 사람들의 느낌은 훨씬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과거의 기억을 쉽사리 묻어버린다. 남산 안기부와 더불어 공포정치의 대명사였던 보안사 서빙고 분실은 1990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이후에 흔적도 없이 부

서져 버렸다. 서대문형무소의 경우 일부 사동과 지하 고문실, 사형장이 남아 있어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역사는 기억되고 있지만, 독재정권 시절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은 지워져 버렸다.

유엔 인권기구들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유린 등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기억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거듭 권고한다. 과거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역사의 교훈을 찾아야 하는 것, 그래서 그 사회가 고통 속에 스러져간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또한 인권의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제 고통스런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안기부 터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만 주면 되는 것인가.

유스호스텔 대 민주주의 · 인권공원

민주운동진영은 남산 안기부 터에 대해 잊고 살았다. 그 끔찍했던 '고문의 추억'을 누군들 간직하고 싶겠는가. 민주열사 묘역을 만들려고 했을 때 잠시 그곳에 묘역을 만들겠다고 한 적은 있었지만, 그 부지가 다른 곳으로 확정된 뒤에는 다시 잊혀진 공간이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24일 한겨레신문에 서울시가 안기부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유스호스텔로 쓰기로 하고 사업자를 공모한다는 기사가 실리고 난 뒤, 이곳을 민주주의와 인권공원으로 만들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남산을 사랑하는 모임 같은 곳에서는 서울시와 정부가 그곳에 종합방재센터 같은 것을 세우는 것에 반대하고, 남산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며 여러 방법으로 서울시를 압박하였고, 결국 유스호스텔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에서야 민주진영은 이곳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다. 이것은 민주진영의 역사인식의 빈곤함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늦었지만 몇몇 인권단체와 민주단체 관계자들이 서둘러 모여 논의를 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울시의 방침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고, 지난 9월 16일에는 20여개 민주 · 인권단체들이 모여 '남산 옛 안기부 터 역사보존 및 인권공원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회의실에서 결성하였다.

그리고 서울시장 면담을 추진하고, 공청회를 준비하며, 안기부 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탐방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만들기 위한 준비팀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대체로 실무자 중심이다. 아직 추진위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힘도 실리지 않고 있다. 민주진영은 늘 현안에 정신이 없다 보니 이런 역사투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못한다.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대로 남산 옛 안기부 본관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사용하게 두어야 하는지….

아직 확정된 안은 없지만 안기부 건물들을 확보하면 참으로 다양한 컨텐츠로 풍부한 교육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별관 지하는 복원하여 고문전시관으로 사용하고, 본관과 별관, 지하벙커와 주변을 활용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주제로 하는 박물관, 청소년 센터, 도서관, 체험관, 야외공연장 등을 마련한다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녹지대와 어우러져 서울 시내에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이다. 참혹한 인권유린이 일어났던 역사의 현장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를 토론하고, 배우도록 하는 일은 이제 민주진영이 미룰 수 없는 공통의 과제일 것이다.

역사인식의 빈곤함을 딛고, 서울의 한 복판에 이런 멋진 기념공원을 만들어내는 일은 힘과 지혜를 모아내면 가능하고, 가능한 만큼 이 일을 방기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역사의 현장이 모두 파괴되고 난 뒤에 무슨 수로 역사의 현장을 복원해낼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 일에 나서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인권운동이고, 민주화운동임을 나는 확신한다.